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유미옥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and Resilience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Mi Ok Yu
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K지역 간호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35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2.57점(4점 척도), 극복력 정도는 5.14점(7점 척도), 진로정체감 정도는 2.62점(4점 척도)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r=.24, p=.005$)과 극복력($r=.54, p<.001$)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beta=.17, p=.019$), 전공 선택 동기의 적성과 흥미($\beta=.32, p=.001$), 전공만족도의 매우 만족($\beta=.30, p<.001$)과 만족($\beta=.29, p<.001$), 소망적사고 대처($\beta=-.20, p=.017$), 극복력($\beta=.26, p=.009$)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진로정체감을 53.7%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적성과 흥미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초자료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정체감 증진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and resilience on career identity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3 to August 31, 2021, targeting 135 nursing college students from 1st to 4th grades in the K area,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The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was 2.57 points (4 point scale); the degree of resilience was 5.14 points (7 point scale); the degree of career identity was 2.62 points (4 point scale).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r=.24, p=.005$) and resilience ($r=.54, p<.001$)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In addition,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were age ($\beta=.17, p=.019$), aptitude and interest in major selection motivation ($\beta=.32, p<.001$), and high satisfaction with major ($\beta=.30, p<.001$) and satisfaction ($\beta=.29, p<.001$), wishful thinking coping ($\beta=-.20, p=.017$) and resilience ($\beta=.26, p=.009$) was observed. These factors were found to explain 53.7% of the variance in career identity. The aptitude and interest of nursing students were identified as major factors in forming a career identity. Therefore, based on the basic data, it is suggested that an interven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promote career identity for nursing students who have difficulties in their careers in non-face-to-face classes due to COVID-19.

Keywords :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Career Identity, Non-face-to-face Classes, Nursing Students

본 논문은 2021년 송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SH-2021-002).

*Corresponding Author : Mi Ok Yu(Songho Univ.)

email: miok732000@songho.ac.kr

Received October 20, 2021

Revised November 15,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라는 새로운 감염병 전파를 경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행위가 강조되고 있다[1]. 특히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임상현장의 의료진과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간호대학생은 일반인에 비해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2].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전국대학에서는 대면수업과 관련된 감염 우려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하는 강좌 사이트 서버 문제 및 수업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줌(ZOOM),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시스템 구축, 더 나아가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전공이론 수업과 임상현장실습이 함께 진행되는 간호대학생은 실습기관의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임상실습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혼란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있다[4,5].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감소하고 진로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게 될 직업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을 갖추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진로정체감은 환경적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7]. 진로정체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8] 전공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어[9], 졸업 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진로를 닦아가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0]. 코로나19로 인해 임상현장실습이 부족한 간호학과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온라인 실습에서도 최대한 임상현장과 유사하게 실습 상황을 계획하여 효율적인 실습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례기반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각 전공 교과목 핵심습기 능력 향상을 위한 동영상 및 테스트가 구비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간호사가 되는 것의 두려움, 준비되지 못한 본인의 모습에 대한 걱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11].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다수의

학생들은 학습 진도 진행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학습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12], 학습효율 저하, 학습량 증가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고 있다[13]. 특히 Hong 등[14]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 전공수업 만족도 감소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생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취하게 되며, 개인의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평가한 후 적절한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된다[15].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구분되며, 개인이 사용한 대처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16]. Noh[17]는 스트레스 대처를 많이 할수록 진로정체감이 상승된다고 하였고, 특히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가 많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상승한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공수업과정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 현 상황에 대한 혼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을 변화하게 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했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적응할 수 있는 극복력이 필요한데, 극복력은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 수준을 조절하고 유연하게 반응하게 하여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18]. Nam[19], Park, Lee와 An[2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은 진로정체감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수업만족도[21], 비대면 수업 경험[22], 수업 스트레스 [23]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수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공수업의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진로 문제나 진로 정체감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K지역에 소재하는 S대학과 M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게 진행되었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24]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예측요인 5개(독립변수 2개와 통제변수 3개[일반적 특성의 절반]의 합),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6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4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35부(96.4%)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Folkman과 Lazarus[25]가 개발한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Kim[26]이 번안하고 요인분석 한 것을 Park [27]이 24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하위영역은 문제중심 대처 6문항,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6문항, 정서중심 대처 6문항, 소망적사고 대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문제중심 대처 Cronbach's α 값은 .86,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Cronbach's α 값은 .79, 정서중심 대처 Cronbach's α 값은 .63, 소망적사고 대처 Cronbach's α 값은 .73이었다.

2.3.2 극복력

극복력은 Wagnild과 Young[28]이 개발한 도구를 Song[29]이 번역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유능성에 관한 17문항과 자신과 삶의 수용성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된 총 25문항의 도구로,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1점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 '동의 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5로, Song[29]과 Park[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8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와 Power[31]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MVS)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Kim과 Kim [32]이 한국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Kwon과 Kim[33]이 한국간호대학생에게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2.4.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해당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설문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연구 참여가 가능함을 공지하고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5월 3일부터 8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온라인 설문지(구조화된 자가보고식 구글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2.4.2 윤리적 고려

온라인 설문지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 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동의는 구글 설문지 첫 문항으로 응답참여 여부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였으며, '예'로 대답한 경우만 설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설문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하였다.
-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간호대학생으로 여자가 110명(81.5%), 남자가 25명(18.5%)이었다. 연령은 20-24세 90명(66.7%), 30세 이상 29명(21.5%), 25-29세 16명(11.9%)의 순이었고, 학년은 4학년 48명(35.6%), 2학년 36명(26.7%), 3학년 31명(23.0%), 1학년 20명(14.8%)의 순이었다. 종교는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79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순이었다. 전공선택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53명(39.3%)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률 50명(37.0%), 부모나 주변의 권유 22명(16.3%), 봉사직 10명(7.4%)의 순이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이 62명(4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매우 만족,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5)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25(18.5)
	Female	110(81.5)
Age	20-24	90(66.7)
	25-29	16(11.9)
	≥30	29(21.5)
Grade	1 grade	20(14.8)
	2 grade	36(26.7)
	3 grad	31(23.0)
	4 grad	48(35.6)
Religion	Christian	37(27.4)
	Catholic	10(7.4)
	Buddhism	9(6.7)
	No	79(58.5)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53(39.3)
	Employment rate	50(37.0)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22(16.3)
	Service job	10(7.4)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4(17.8)
	Satisfaction	62(45.9)
	Moderate	45(33.3)
	Dissatisfaction	4(3.0)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공선택동기(F=3.04, $p=.031$), 전공만족도(F=8.9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공선택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전공만족도에서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만족, 보통, 불만족인 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연령(F=4.53, $p=.013$), 전공선택동기(F=4.50, $p=.005$), 전공만족도(F=9.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서는 30세 이상의 학생이 20세~24세의 학생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전공에 매우 만족 하는 학생이 만족, 보통, 불만족인 학생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연령(F=12.56, $p<.001$), 전공선택동기(F=9.41, $p<.001$), 전공만족도(F=15.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Table 2. Difference of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ategories	Characteristics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Career identity	
		M±SD	t or F (p) Tukey	M±SD	t or F (p) Tukey	M±SD	t or F (p) Tukey
Gender	Male	2.67±.92	1.36 (.176)	5.24±.88	.78 (.438)	2.69±.58	.61 (.542)
	Female	2.55±.40		5.11±.75		2.61±.58	
Age	20-24 ^a	2.59±.42	.25 (.782)	5.01±.77	4.53 (.013) c>a	1.45±.52	12.56 (<.001) c>a
	25-29 ^b	2.52±.46		5.21±.74		1.55±.59	
	≥30 ^c	2.54±.36		5.19±.71		1.78±.54	
Grade	1 grade	2.61±.43	.12 (.951)	5.12±.69	.29 (.834)	2.70±.35	1.42 (.239)
	2 grade	2.56±.37		5.18±.75		2.73±.47	
	3 grad	2.58±.35		5.03±.68		2.45±.58	
	4 grad	2.55±.48		5.18±.89		2.62±.63	
Religion	Christian	2.57±.40	.09 (.968)	5.06±.83	.56 (.643)	2.68±.53	1.37 (.255)
	Catholic	2.62±.36		5.14±.74		2.39±.56	
	Buddhism	2.60±.45		5.43±.84		2.89±.56	
	No	2.56±.43		5.14±.75		2.59±.60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a	2.63±.37	3.04 (.031)	5.44±.68	4.50 (.005) a>b	2.91±.50	9.41 (<.001) a>b,c
	Employment rate ^b	2.46±.45		4.95±.82		2.51±.54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c	2.58±.30		5.04±.66		2.24±.48	
	Service job ^d	2.82±.49		4.81±.87		2.59±.7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a	2.93±.40	8.96 (<.001) a>b,c,d	5.71±.79	9.14 (<.001) a>b,c,d	3.00±.68	15.60 (<.001) a>c,d b>c
	Satisfaction ^b	2.52±.36		5.18±.60		2.77±.47	
	Moderate ^c	2.46±.40		4.83±.79		2.25±.43	
	Dissatisfaction ^d	2.36±.31		4.47±.99		2.18±.62	

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서는 30세 이상의 학생이 20세~24세의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성과 흥미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학생들은 보통, 불만족인 학생보다, 만족인 학생들은 보통인 학생보다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Table 2>.

3.3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정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7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에서 문제중심 대처 2.64점, 사회적지지 추구 2.63점, 정서중심 대처 2.20점, 소망적사고 2.8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극복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5.14점이었으며, 진로정체감 정도는 4점 만점에 2.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N=135)

Variables	Min	Max	M±SD
Stress coping styles	1.58	3.96	2.57±.41
Problem-focused	1.00	4.00	2.64±.61
Seeking social support	1.17	3.83	2.63±.57
Emotionally oriented	1.00	4.00	2.20±.50
Wishful thinking	1.33	4.00	2.80±.55
Resilience	3.08	6.88	5.14±.78
Career identity	1.36	3.79	2.62±.58

3.4 스트레스 대처방식, 극복력,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스트레스 대처방식($r=.24, p=.005$), 극복력($r=.54, p<.00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스트레스의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문제중심($r=.43, p<.001$), 사회적지지 추구($r=.22, p=.011$)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극복력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54, p<.001$)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요인 중 문제중심($r=.69, p<.001$), 사회적지지 추구 ($r=.39, p<.001$), 정서중심($r=.21, p=.016$), 소망적사고 ($r=.26, p=.002$)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Table 4. Relationship of 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and career identity

(N=135)

Variables	Resilience	Career identity
	r(p)	r(p)
Total stress coping styles	.54(<.001)	.24(.005)
Problem-focused	.69(<.001)	.43(<.001)
Seeking social support	.39(<.001)	.22(.011)
Emotionally oriented	.21(.016)	.03(.694)
Wishful thinking	.26(.002)	-.01(.937)
Resilience	1	.54(<.001)

3.5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전공선택동기 및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로 하여 입력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 확인을 위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374~.896 으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17~2.675로 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1.81, p<.001$), 입력 변수 중 나이($\beta=.17, p=.019$), 전공선택동기의 적성과 흥미($\beta=.32, p=.001$), 전공만족도의 매우 만족($\beta=.30, p<.001$)과 만족($\beta=.29, p<.001$), 소망적사고 대처($\beta=-.20, p=.017$), 극복력($\beta=.26, p=.009$)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선택동기에서 부모와 주변의 권유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적성과 흥미로 학과를 선택한 대상자는 5.33만큼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으며, 전공만족도에서 보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우 만족한 대상자는 6.36만큼, 만족한 대상자는 4.73만큼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다. 이러한 변수들은 진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N=135)

Variables	B	SE	β	t(p)	Collinearity	
					Tolerance	VIF
Age	1.62	.682	.17	2.38(.019)	.786	1.272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interest	5.33	1.575	.32	3.39(.001)	.428	2.337
Employment rate	2.31	1.535	.14	1.51(.134)	.441	2.270
Service job	2.09	2.419	.07	.86(.390)	.616	1.622
Parents and surrounding invitations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6.36	1.758	.30	3.62(<.001)	.547	1.827
Satisfaction	4.73	1.218	.29	3.88(<.001)	.672	1.488
Dissatisfaction	.75	3.200	.02	.26(.798)	.896	1.117
Moderate						
Problem-focused	.29	.224	.13	1.31(.194)	.374	2.675
Seeking social support	.19	.215	.08	.88(.380)	.458	2.184
Emotionally oriented	-.08	.181	-.03	-.42(.678)	.851	1.176
Wishful thinking	-.48	.198	-.20	-2.43(.017)	.588	1.699
Resilience	.11	.040	.26	2.66(.009)	.411	2.432

R2(Adj. R2)=.537(.492), F(p)=11.81(<.001)

로정체감을 53.7% 설명하고 있었으며, 전공선택동기의 적성과 흥미($\beta=.32, p=.001$)가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고찰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그 해결과정은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된 진로에 영향을 준다[17,19,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에서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더 높았는데 이는 Noh[1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Jang[34], Kim, Kim과 Lee[35]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에 따라 여러 다양한 대처를 함께 사용하지만 하위영역별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16], 전공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도 상황 해결을 위한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은 나이,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ark[30]이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에서 연령이 26세 이상인 학생들이 19세~25세 학생들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령대 범위와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많은 학생일수록 극복력이 더 높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전공선택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학생이 취업률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보다 극복력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은 Nam과 Kim[3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은 Lee와 Park[3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역경을 견딜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며, 전공에 만족하고 같은 학년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일수록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기 전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전공을 미리 탐색하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된다면, 코로나19와 같

은 상황적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입생들에 대한 분석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도 분석하여 전공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나이,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o와 Cho[38]의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과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에 따른 차이는 Noh[17]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적성과 흥미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고 직업선택에 있어 높은 자기 확신이 있으나[39], 취업률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의 강도 높은 활동, 위험한 근무환경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경험하고 또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진로정체감이 더 낮은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진로정체감이 부족한 학생들을 확인하여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진로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는 4점 만점에 2.57점으로, 하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소망적 사고 대처(2.80점)였고, 문제중심 대처(2.64점), 사회지지 추구 대처(2.63점), 정서중심 대처(2.20점)의 순이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Yu[40]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가 본 연구보다 높은 3.1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점수도 본 연구의 점수보다 높았다. 그러나 하위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는 소망적 사고 대처이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대처는 정서중심 대처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Jang[3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가 비슷한 점수로 나타났고(2.56점), 하위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가 소망적 사고 대처라는 점에서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소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스트레스원을 피하거나 긍정적 측면만을 선별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16]. 반면 문제중심 대처는 적극적 대처로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 및 장단점을 확인 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처방식으로[16],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적 시점에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 곳에 치우친 대처보다는 여러 대처방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극복력 정도는 7점 만점에 5.1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91점으로 나타난 Kim과 Park[41]의 연구와 4.50점으로 나타난 Park[30]의 연구보다 높았다. 극복력은 새로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며[29], 학과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41],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여건으로 전공 수업이나 임상실습 등의 환경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극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재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정도는 4점 만점에 2.6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Noh[17]의 연구 2.67점과 비슷하였지만, Cho와 Cho[38]의 2.80점 보다는 약간 낮았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상황과 이와 관련된 전공수업의 지속적 비대면 진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확한 진로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졸업 후 간호사라는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42], 미래 간호사가 되어서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증가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를 같이 연구한 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으나, Noh[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였으며, Cho와 Cho[38]의 연구에서 극복력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극복력은 진로정체감과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극복력 향상 노력이 향후 진로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극복력이었고, 부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망적 사고 대처였다. 이들 요인은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53.7% 설명하고 있었으며,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가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Seo와 Jeong[4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의 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주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고, Noh[1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 소망적 사고 대처는 부적 영향을 미쳐 본 연구에서 소망적 사고 대처만 진로정체감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Cho와 Cho[38]의 연구에서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적성과 흥미를 가진 전공선택, 전공만족도, 극복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진로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정체감 확립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소망적 사고 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면담 등을 통해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나이,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극복력, 소망적 사고 대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초자료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에서 진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지속으로 간호대학생은 전공수업 만족도가 감소하고, 부족한 임상실습과 연관된 스트레스로 진로에 대한 불안,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극복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중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나이, 전공선택동기(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매우 만족, 만족), 극복력, 소망적 사고 대처는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성과 흥미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전공 선택이 중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전공 관련 진로를 잘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중재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ronavirus disease-19(COVID-19)[Internet]. Sejong: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cited 2020 November 27]. Available From: <http://ncov.mohw.go.kr/en/> (accessed Oct. 1, 2021)
- [2] J. S. Kim, J. S. Choi,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related knowledge, preventive behaviors and risk perception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outbreak",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5, No.17, pp.2542-2549, Sep, 2016. DOI: <https://doi.org/10.1111/jocn.13295>
- [3] D. Wang, B. Hu, C. Hu, F. Zhu,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38 hospitalized patients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fected pneumonia in wuhan, china", *Journal of American Medicine Association*, Vol.323, No.11, pp.1061-1069, Feb, 2020. DOI: <https://doi.org/10.1001/jama.2020.1585>
- [4] M. M. Park, J. H. Shin, "The effect of on line substitution class caused by corona virus(covid-19)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online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9, No.1, pp.77-86, Jul, 2021. DOI: <https://doi.org/10.22961/JHCLS.2021.9.1.77>
- [5] H. Aslan & H. Pekince, "Nursing students' 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and their perceived stress levels",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Vol.57, pp.695-701, Aug, 2021. DOI: <https://doi.org/10.1111/ppc.12597>
- [6] M. H. Kim, J. Y. Seo,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senior nursing students after taking non-face-to-face video lessons for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2, pp.77-86, Jun,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77>
- [7] J. L. Holland, D. C. Daiger, P. G. Power, My vocation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1980.
- [8] C. G. Oh,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career identity,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 pp.449-473, Jan,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1.23.1.449>
- [9] I. S. Kim, M. J. Son, H. K. Park,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8, No.2, pp.302-312, Feb,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2.302>
- [10] Y. J. Kim, M. Y. Kim, "A study on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0, pp.369-379, Oct, 2019. DOI: <https://doi.org/10.35873/aimahs.2019.9.10.032>
- [11] S. H. Lim, "Content analysis on online non- face-to-face adult nursing practice experienced by graduating nursing students in the ontact er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4, pp.195-205, Jan,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4.195>
- [12] D. I. Lee, 10 Disadvantages of 'online lectures' picked by university students[Internet]. eKorea, 2020 [cited 2020 March 24]. Available From: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1> (accessed Oct. 1, 2021)
- [13] Y. S. Lee, D. K. Shin, "An investig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online classes in the untact era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Vol.23, No.4, pp.39-57, Aug, 2020. DOI: <https://doi.org/10.29221/jce.2020.23.4.39>
- [14] K. S. Hong, J. W. Han, "The effect of online classes due to covid-19 on academic str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4, pp.7973-7988, Aug,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4.140>
- [15] K. Glanz, M. Schwartz,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Sanfrancisco: Jossey-Bass, 2008.
- [16]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1984.
- [17] G. O. Noh,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6, No.1, pp.25-34, Jun, 2018. DOI: <https://doi.org/10.17333/JKSSN.2018.6.1.25>
- [18] J. H. Seo, *Effects of nursing image, satisfaction in major, ego-resili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Korea, 49, 2018.
- [19] H. R. Nam, "Effects of family health, self-respect, and resilience elastic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6, No.2, pp.1-6, May, 2021. DOI: <https://doi.org/10.31152/JB.2021.05.6.2.1>
- [20] S. N. Park, J. E. Lee, H. R. An, "A study on clinical violence, emotional response, resilience and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Crisisonomy*, Vol.13, No.10, pp.87-101, Oct, 2017. DOI: <https://doi.org/10.14251/crisisonomy.2017.13.10.87>
- [21] Y. H. Hwang, C. S. Kim, "Perception toward non-face-to-face Online class ope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and anxiet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Vol.29, No.1, pp.71-91, Mar, 2021. DOI: <https://doi.org/10.24303/lakdoi.2021.29.1.71>
- [22] H. S. Choi, "A study on the non-face-to-face teaching

- experience of college freshmen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273-286, Feb,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273>
- [23] K. S. Kim, Y. J. Park,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 No.9, pp.644-651, Sep,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9.644>
- [24]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pp.175-191, May, 2007.
DOI: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5] S. Folkman, R. S. Lazarus, "If it changes it must be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8, pp.150-170, Jan, 198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48.1.150>
- [26] J. H. Kim, H. Lee, "Factor of stress coping method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The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Vol.7, pp.127-138, Dec, 1985.
- [27] J. Y.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33, 1995.
- [28] G. M. Wagnild, H. M. Young,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Vol.1, No.2, pp.165-178, Jan, 1993.
- [29] Y. S. Song, *Determinants of resilience of the physically disabled at home*,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p.27, 2004.
- [30] J. Y. Park, *Stress, stress res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Korea, pp.27, 2011.
- [31] J. L. Holland, D. C. Daiger, P. G. Power,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orporated, 1980.
- [32]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9, No.1, pp.311-332, Jun, 1997.
- [33] Y. H. Kwon, C.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3, No.2, pp.216-229, Jun, 2002.
- [34] H. J. Ja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 academic stress,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7, No.4, pp.969-985, Aug, 2020.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4.969>
- [35] J. K. Kim, W. J. Kim, S. J. Lee,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7, pp.120-126, Jul,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20>
- [36] M. H. Nam,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Vol.24, No.4, pp.298-306, Sep,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 [37] J. L. Lee, S. J. Park,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he meaning of life, empathy skills,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1, pp.66-75, Nov,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66>
- [38] J. H. Cho, O. H. Cho, "The effect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9, pp.435-444, Jul, 2021.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9.435>
- [39] E. J. Jo, J. H. Park, K. M. Lim,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329-337, Oct,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329>
- [40] S. H. Yu, "Influence of stress coping typ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major satisfaction on lif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0, pp.297-305, Oct,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0.297>
- [41] J. S. Kim, S. J. Park, "Relevance of critical thinking, coping power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2, pp.247-256, Dec, 2018.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12.024>
- [42]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0, No.2, pp.163-173, Sep, 2006.
- [43] Y. S. Seo, C. Y. Jeong,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8, No.1, pp.1377-1385, Jun, 2020.
DOI: <https://doi.org/10.15205/kschs.2020.06.30.1377>

유 미 옥(Mi Ok Yu)

[종신회원]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반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10월 ~ 현재 : 송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소아청소년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